

# 광주 인공지능 투자 펀드 1천억원 조성

### 광주에 등지른 기업 집중 투자...10월 말 투자 설명회 AI관련 기업 35곳 광주 이전·지역 사무소 개소

광주 인공지능(AI) 육성 사업을 위해 조성한 1000억원 규모 투자펀드가 관련 기업 등에 집중 투자된다.

시는 특히 광주에 등지를 둔 AI기업 등을 대상으로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AI 중심도시 육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17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투자펀드 조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융합사업단과 테크노파크로부터 각각 50억원을 출자받은 2개 운용사가 500억원

이상씩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1곳은 548억 규모로 조성을 완료했으며 다른 1곳도 10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연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융합사업단과 테크노파크는 각각 창업 7년 미만, 그 이상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분야 관련 기업에 2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융합사업단과 테크노파크는 10월 말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20개 참

여 기업을 29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설명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AI중심도시를 선언한 광주로 이전하는 AI관련 기업도 크게 늘고 있다. 벌써 35개 기업이 광주로 이전하거나 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광주시는 이날도 에티포스, 테너지소프트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화상 업무 협약을 했다. 광주시와 인공지능 기업 간의 34~35번째 협약으로 각 기업은 광주 법인, 지역사무소를 설립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에티포스는 미국 실리콘 벨리에서 창업한 한국계 스타트업으로 차량 대 사물(Vehicle to Everything·V2X) 통신 전

문기업이다. 테너지소프트는 컴퓨터 이용공학(CAE) 분야 소프트웨어 공급, 지원,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임용제 에티포스 대표이사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광주시와 협력해 기술, 인적 자원 확보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석 테너지소프트 대표이사는 "지역 내 자동차 연구개발 기관, 기업과 시를 연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가 AI중심도시로 거듭나면서 국내외 AI기업들이 광주로 몰려들고 있다"면서 "이전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집중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광주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682억원 지원

광주시가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나선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682억원(국비 380억·시비 170억·구비 132억원) 규모의 집중호우 피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 65억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 35억원, 공공시설 복구 582억원 등이다.

지원 규모는 사망자(2명) 각 2000만원, 부상자(1명) 500만~1000만원, 주택 전파(2가구) 1600만원, 주택 반파(20가구) 800만원, 주택 침수(893가구) 200만원, 상가 침수(1742건) 200만원, 농경시설(5130건) 39억원 등이다. 이재민 구호와

생계 지원에는 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지원금(100억원)을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복구도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관바로 집행한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거주지 관할 5개 자치구(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한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폭우 피해를 본 북구, 광산구, 학운동, 지원2동, 유덕동, 서창동, 효덕동 대촌동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다.

##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전국 최다'

### 정부 공모 15개 사업 222억 확보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15개 사업에 22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전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왔다. 지난 3월 도내 모든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주민설명회와 참여기업 공모·평가 등을 거쳐 우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전남지역본부의 컨설팅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추진 완성도를 높여 공모에 참여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 시·도에서 신청한 126개 사업에 대해 공개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14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전남도는 목포, 여수, 나주 등 14개 시·군에서 15개 사업이 선정된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한편 올해 사업은 광양시 등 5개 시·군에 총 사업비 153억원이 투입돼 1859개소 건축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3kW)가 설치 완료되면, 월간 전력사용량이 350kWh정도(5만5000원)가 절감돼 연간 62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비롯 3342kg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왔다. 지난 3월 도내 모든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주민설명회와 참여기업 공모·평가 등을 거쳐 우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전남지역본부의 컨설팅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추진 완성도를 높여 공모에 참여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 시·도에서 신청한 126개 사업에 대해 공개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14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전남도는 목포, 여수, 나주 등 14개 시·군에서 15개 사업이 선정된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한편 올해 사업은 광양시 등 5개 시·군에 총 사업비 153억원이 투입돼 1859개소 건축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항일의 섬' 소안도에 친환경 부표 태극기 17일 항일의 섬인 완도 소안도항 주변 담수호에 친환경 부표를 사용해 만들어진 태극기 조형물이 설치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 조형물은 완도군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설치했다. <완도군 제공>

##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공사 내년 말 착공

(2800→3200m)

### 전남도, 통합대비 편의시설 확충 KTX 무안공항 경유 사업도 순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2800→3200m) 공사가 이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간다. 활주로 연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무안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4번째로 보잉 747기 등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진다.

전남도는 17일 "2021년 광주공항 통합을 앞두고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공항 내 편의시설을 확충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중장거리 대형민항기와 화물기의 이·착륙을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를 현재 2800m에서 전남도가 요구한 400m 이상 연장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다. 전남도 요구안이 기본계획으로 확정돼 구축될 경우 인천, 김포에 이어 국내 3번째로 긴 활주로가 될 전망이다. 보잉 747기 등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진다.

전남도는 국토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편의를 위한 여객정사 리모델링(면세점 확장 등)과 주차장 3284면 증설에 대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관리동 신축공사 등과 함께 총 321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광주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역시 오는 11월 착공해 오는 2023년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포 임성과 부산 간 남해안 철도도 2023년에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교통 접근성이 대폭 확충된

다. 이에 따라 충남 이남 지역과 경남권, 전남 동부권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돼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국제공항은 제1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995~2000년)에 지방화·국제화에 대비한 지역거점 호남권 신공항 개발 필요에 따라 2007년 11월 개항했다. 제2차·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2000~2010년)에서는 무안공항 개항 시 광주공항 국제선과 국내선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난 2018년 8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을 국토의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남아 있는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이전하겠다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전남도, 추석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전남도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단속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이며, 품목은 과수와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다.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 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을 대

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인원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키로 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